

A06

삼국의 성장과 한강 유역 경쟁

고구려·백제·신라는 나라 안의 조직을 갖추면서 주변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한때 도움을 주고받은 나라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기도 했고, 공격을 받아 수도를 옮긴 나라가 다시 힘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왕의 이름과 사건을 따로 외우기 전에, 무엇을 얻으려고 움직였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연결해 봅시다.

이 단원에서 답할 질문 12

- Q01 근초고왕 때 백제가 강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 Q02 광개토 대왕은 왜 신라를 도와 왜군을 물리쳤나요?
- Q03 광개토 대왕릉비는 무엇을 알려 주는 자료인가요?
- Q04 장수왕은 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나요?
- Q05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던 신라는 왜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나요?
- Q06 신라의 이사금·마립간·왕은 서로 다른 나라의 지배자인가요?
- Q07 백제는 왜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나요?
- Q08 무령왕은 왜 22담로에 왕족을 보냈나요?
- Q09 백제는 왜 웅진에서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겼나요?
- Q10 삼국은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 했나요?
- Q11 한강 유역의 주도권은 어느 나라로 옮겨 갔나요?
- Q12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백제와 신라는 왜 다시 싸웠나요?

삼국의 주요 도시와 강

지명과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지도



해안선·강줄기 단순화 / 영토 경계·이동 경로는 표시하지 않음

그림 1. 도시와 강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세요. 본문을 읽다가 지명이 나오면 이 지도로 돌아와 위치를 확인하세요. 도시 이름과 수도 이동의 이유는 본문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해안선과 강줄기를 단순화한 위치 지도이며, 삼국의 영토 경계나 실제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가 아닙니다. 한성은 서울 일대를 대표하는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Q01 근초고왕 때 백제가 강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한 줄 답

마한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며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중국·왜와도 활발히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보여 줍니다.

용어 풀이

- **근초고왕**: 4세기 백제의 왕으로, 영토와 대외 활동의 범위를 넓혔음.
- **마한**: 오늘날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있던 여러 작은 나라의 집단. 백제도 마한의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성장했음.
- **통합**: 나뉘어 있던 집단이나 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것.
- **전성기**: 나라나 세력의 힘이 매우 강하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
- **세기**: 100년씩 묶어 세는 기간. 예를 들어 4세기는 301~400년임.
- **왜**: 당시 일본 열도에 있던 여러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말.
- **교류**: 사람·물건·기술·문화 등이 서로 오가는 것.

설명 1 주변의 땅과 사람을 확보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웠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한강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물이 모이는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류는 큰 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강을 말합니다. 근초고왕 때에는 마한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며 남쪽으로 영향력(다른 집단의 행동이나 결정에 미치는 힘)을 넓혔습니다. 더 많은 땅과 사람을 확보하면 곡식을 거두고 군대를 마련할 기반도 커졌습니다. 다만 남쪽의 모든 지역을 한 번에 똑같이 다스리게 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2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만큼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371년 백제군은 고구려의 평양성(평양 일대에 있던 고구려의 성)을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전사는 전투 중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백제가 북쪽으로도 강한 힘을 행사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안 일대)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훗날 고구려 장수왕(광개토 대왕의 아들로, 5세기 고구려를 다스린 왕)의 평양 천도 뒤에 일어난 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설명 3 바다 건너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백제는 중국의 동진(당시 중국 남쪽에 있던 왕조)과 외교 관계를 맺고 왜와도 교류했습니다. 외교는 나라와 나라가 사신(나라의 뜻을 전하러 다른 나라에 보내는 사람)을 보내거나 협의하며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따라서 근초고왕의 활동은 영토 확대뿐 아니라 나라 밖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마한 세력 통합·평양성 공격과 고국원왕 전사·동진 및 왜와의 교류’를 연결하세요. 평양성 공격은 고구려 멸망과 다릅니다.

Q02 광개토 대왕은 왜 신라를 도와 왜군을 물리쳤나요?

한 줄 답

신라의 구원 요청에 응하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백제를 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돕는 일은 자기 나라의 힘을 넓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용어 풀이

- **광개토 대왕**: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의 왕으로, 영토와 세력 범위를 크게 넓혔음.
- **내물왕**: 4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신라를 다스린 왕.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받은 때의 신라 왕임.
- **견제**: 상대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 **병합**: 다른 나라나 지역을 자기 나라의 일부로 합치는 것.

설명 1 고구려는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세력을 넓혔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만주(오늘날 중국 동북부 일대) 방면으로 영토를 넓히고,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신라 지원도 이런 세력 확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나라를 도운 사건만 떼어 보기보다,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명 2 신라는 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물왕 때 신라는 왜군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400년에 군대를 보내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의 지원으로 신라는 위기를 넘겼지만, 그 뒤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설명 3 지원은 백제를 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왜와 관계를 맺으며 고구려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면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왜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신라가 곧바로 고구려에 병합된 것은 아닙니다. 신라는 자기 왕과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개토 대왕의 신라 지원은 ‘왜군 격퇴(쳐서 물리침)·신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백제 견제’로 이해합니다.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신라의 병합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Q03 광개토 대왕릉비는 무엇을 알려 주는 자료인가요?

한 줄 답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과 당시 고구려가 자기 나라와 왕을 어떻게 높이 보았는지 알려 줍니다.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려고 세운 비석이므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남긴 기록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의 무덤 부근에 세운 비석. ‘릉’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 ‘비’는 글을 새겨 세운 돌을 뜻함.
- **비문**: 비석에 새긴 글.
- **정복**: 무력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을 굴복시키거나 차지하는 것.
-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아들로, 5세기 고구려를 다스린 왕.
- **연호**: 해를 셀 때 붙이는 이름. ‘영락’은 광개토 대왕이 사용한 고구려의 연호임.
- **태왕**: 고구려에서 왕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데 쓴 칭호.

설명 1 비를 세운 왕과 기록의 주인공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수왕은 414년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가 있는 곳은 옛 국내성 부근으로, 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안 일대입니다. 비문의 정복 활동과 신라 지원 기록을 통해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가 어떤 지역과 나라에 힘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명 2 왕과 나라를 높이는 의식도 드러납니다.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자체 연호를 사용하고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여기고 왕의 권위를 높였음을 보여 줍니다. 권위는 사람들이 그 지위나 능력을 인정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만으로 고구려가 주변 모든 나라를 직접 다스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설명 3 기념비의 기록은 다른 자료와 함께 읽습니다.

이 비는 왕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고구려가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에 유리한 입장과 표현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문 전체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기록이나 유적과 비교하며 읽어야 정복 활동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장수왕의 건립·영락·태왕’을 연결하세요. 자료가 알려 주는 내용과 그 자료를 만든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Q04 장수왕은 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나요?

한 줄 답

넓어진 나라를 다스리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에 평양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귀족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용어 풀이

- **국내성:** 압록강 부근에 있던 고구려의 옛 수도. 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안 일대에 있음.
-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는 도시로, 장수왕이 옮긴 고구려의 수도.
- **압록강·대동강:** 압록강은 한반도 북서쪽에 있는 강이며, 대동강은 평양을 지나 서해로 흐르는 강임.
- **남진 정책:** 남쪽으로 영토나 세력을 넓히려는 정책. 남하 정책이라고도 함.
- **귀족:** 높은 신분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던 지배층.
- **왕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설명 1 평양은 나라 운영과 남쪽 진출에 유리했습니다.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평야와 물길을 이용할 수 있었고, 국내성보다 한반도 중부에 가까웠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중심지로 삼기 좋았습니다.

설명 2 수도 이동은 왕과 귀족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성에는 오랫동안 힘을 쌓아 온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정치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귀족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양 천도는 지도에서 위치만 바뀐 일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 방식을 다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설명 3 평양 천도 뒤 한강 유역을 향한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오늘날 서울 일대)을 함락했습니다. 함락은 적의 성이나 수도를 공격해 차지하는 일입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오늘날 충주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비석)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까지 진출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평양 천도와 한성 함락은 같은 해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장수왕은 ‘평양 천도(427)·왕권 강화·남진 정책·한성 함락(475)’을 연결합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중부 지역 진출을 보여 줍니다.

Q05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던 신라는 왜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나요?

한 줄 답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간섭이 커지고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자, 신라와 백제 모두 고구려를 견제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도움을 받았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나라와 손잡을 수 있었습니다.

용어 풀이

- **동맹:**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라들이 협력하기로 맺는 관계.
-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동맹. ‘나’는 신라, ‘제’는 백제를 가리킴.
- **간섭:** 다른 나라나 집단의 일에 끼어들어 영향을 주는 것.
- **눌지왕:** 5세기 신라의 왕으로,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음.

설명 1 구원을 받은 뒤에도 도움을 준 나라와 갈등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지원 뒤 고구려는 신라에 군대를 머물게 하는 등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신라는 자기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군의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던 고구려가, 나중에는 신라가 벗어나려는 간섭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설명 2 백제와 신라에게 고구려 견제라는 공동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남진 정책은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위협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맞서는 것보다 힘을 합치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신라 눌지왕 때 백제와의 동맹이 맺어졌으며, 보통 그 시작을 433년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백제의 한성이 함락된 475년보다 앞선 일입니다.

설명 3 동맹은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제와 신라는 각자의 왕과 나라를 유지하면서 고구려에 함께 맞섰습니다. 고구려를 견제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차지하고 싶은 땅이나 나라의 이익까지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맺어졌다고 이후에 두 나라가 항상 같은 편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나제 동맹은 ‘백제와 신라의 협력·고구려의 남진과 간섭 견제’입니다. 동맹은 한성 함락보다 먼저 맺어졌고, 두 나라의 병합을 뜻하지 않습니다.

Q06 신라의 이사금·마립간·왕은 서로 다른 나라의 지배자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모두 신라의 왕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칭호의 변화는 왕위 계승과 통치 제도가 정비되며 왕의 지위가 높아진 흐름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왕호:** 왕을 부르는 칭호. 칭호는 지위에 따라 붙이는 이름을 뜻함.
- **이사금:** 신라 초기 왕을 부르던 칭호 가운데 하나.
- **마립간:** 신라의 왕호로, 여러 우두머리 가운데 큰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풀이함.
- **세습:** 지위나 재산 등을 같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
- **지증왕:** 6세기 초 신라의 왕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정비했음.

설명 1 이사금 때에도 신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라 초기에는 박씨·석씨·김씨 집안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이때 쓰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이사금입니다.

설명 2 김씨 왕위 세습과 마립간이라는 왕호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물왕 때에는 김씨 집안이 왕위를 이어 가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무렵 마립간이라는 왕호의 사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왕위가 특정 집안에서 이어지고 큰 우두머리를 뜻하는 왕호를 쓰게 된 변화는 왕실의 지위가 강해지는 흐름과 연결됩니다.

설명 3 지증왕 때에는 왕호를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지방 통치 등 다른 제도 정비와 함께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왕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왕이 없었다’거나 ‘이름만 바꾸어 왕권이 저절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호 변화는 실제 통치 조직의 발전과 함께 보는

단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사금 → 마립간 → 왕은 신라 왕호의 변화입니다. ‘내물왕 무렵의 김씨 왕위 세습·마립간’과 ‘지증왕의 왕호 변경’을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Q07 백제는 왜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나요?

한 줄 답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어 기존 수도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방어에 유리한 웅진에서 나라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용어 풀이

- **웅진:** 한성 함락 뒤 백제가 옮긴 수도로, 오늘날 충남 공주.
- **개로왕:** 한성이 함락될 때 고구려군에게 죽임을 당한 백제의 왕.
- **문주왕:** 개로왕 뒤에 왕이 되어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백제의 왕.
- **방어:** 적의 공격을 막아 지키는 것.

설명 1 한성 함락은 백제에 큰 위기였습니다.

고구려군은 한성을 공격해 차지했고 개로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제는 정치의 중심지와 한강 유역의 중요한 기반을 잃었습니다. 왕과 나라의 조직을 다시 세울 곳이 필요했으므로, 이때의 천도는 더 좋은 도시를 여유롭게 고른 일과는 달랐습니다.

설명 2 웅진은 산과 강을 이용해 지키기 좋았습니다.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웅진은 금강과 주변 산지를 이용해 적의 접근을 막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금강은 공주와 부여 일대를 지나 서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백제는 이런 지형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며 통치 조직을 정비해 갔습니다.

설명 3 수도를 잃었다고 나라가 곧바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백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웅진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무령왕과 성왕 같은 왕들이 나라의 힘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한성 함락’과 ‘백제 멸망’을 같은 사건으로 외우면 이후 백제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 → 문주왕의 웅진 천도’를 연결합니다. 한성은 서울 일대, 웅진은 공주입니다. 수도 상실과 국가 멸망을 구별하세요.

Q08 무령왕은 왜 22담로에 왕족을 보냈나요?

한 줄 답

왕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방의 책임자로 보내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잘 전달되게 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정책이었습니다.

용어 풀이

- **무령왕**: 6세기 초 백제의 왕으로, 웅진 시기에 나라의 안정을 되찾고 통치를 정비했음.
- **담로**: 백제의 지방 통치 거점 또는 구역. 무령왕 때에는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했음.
- **왕족**: 왕과 혈연으로 이어진 집안 사람들. 혈연은 부모·자식이나 형제처럼 핏줄로 이어진 관계임.
- **중앙 집권**: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왕과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

설명 1 수도의 명령만으로 지방의 일이 저절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제의 지방에는 자기 지역에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움직이려면 지방도 중앙의 방침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백성에게 거두는 곡식이나 물품 등을 말합니다. 지방을 맡아 다스릴 책임자를 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설명 2 왕족을 보내 왕과 지방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무령왕은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과 가까운 사람이 지방의 책임을 맡으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지방 세력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2’는 담로의 수를 가리킵니다.

설명 3 왕이 혼자 직접 모든 지방을 다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왕이 책임자를 통해 지방을 통제했다는 데 있습니다. 왕이 모든 지역에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왕족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방이 즉시 똑같은 정도로 통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웅진 시기 백제의 왕권 회복과 중앙 집권 강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22담로는 ‘무령왕·왕족 파견·지방 통제 강화’입니다. 왕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했다거나 나라를 22개의 독립 국가로 나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Q09 백제는 왜 웅진에서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겼나요?

한 줄 답

회복한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수도를 마련하고, 왕 중심의 통치와 대외 활동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왕의 사비 천도는 위기를 피해 웅진으로 옮겼을 때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용어 풀이

- **성왕:** 6세기 백제의 왕으로, 사비 천도와 국가 체제 정비를 추진했음.
- **사비:** 웅진 다음의 백제 수도로, 오늘날 충남 부여.
- **중흥:** 한때 약해진 나라나 세력이 다시 힘을 회복해 일어서는 것.
- **국호:** 나라의 이름.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음.

설명 1 웅진은 방어에 좋았지만 넓은 수도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웅진은 주변에 산지가 많아 지키기에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힘을 회복한 뒤 더 큰 수도를 꾸미고 여러 시설을 배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수도를 마련하는 문제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설명 2 성왕은 사비의 넓은 터와 금강 물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성왕은 538년에 수도를 사비로 옮겼습니다. 사비는 넓은 수도를 마련하고 금강의 물길을 이용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왕은 천도와 함께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웅진과 사비는 모두 금강 유역에 있지만, 도시를 만들 공간과 주변 지형은 달랐습니다.

설명 3 국호 변경에도 다시 강한 나라가 되려는 뜻이 담겼습니다.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어 부여(만주 일대에 있던 옛 나라)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계승은 앞선 나라나 사람의 전통 등을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옛 나라 부여와 오늘날 사비의 위치를 설명할 때 쓰는 지명 부여를 구별하세요. 국호 변경은 백제의 중흥을 추진한 변화였습니다. 다만 이름과 수도를 바꾸었다고 곧바로 한강 유역을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한강 회복을 위한 전쟁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주왕의 웅진 천도: 한성 함락 뒤 나라를 지키고 정비함’과 ‘성왕의 사비 천도(538): 중흥과 왕권 강화’를 비교합니다. 백제의 수도는 한성 → 웅진 → 사비 순서입니다.

Q10 삼국은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 했나요?

한 줄 답

농사짓기 좋은 땅과 사람을 확보하고, 물자를 나를 길과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강 유역은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용어 풀이

- **농업 생산력:** 농사를 지어 곡식 등 먹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힘.
- **수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
- **교역:**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
- **주도권:** 다른 나라나 세력보다 앞서 상황의 흐름을 이끄는 힘.

설명 1 곡식과 사람은 나라를 유지하는 기반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의 평야에서는 농사를 지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역을 확보하면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영토는 지도에서 색칠하는 면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과 생산되는 물자가 나라의 힘에 연결되었습니다.

설명 2 강과 육지의 길은 사람과 물자를 이어 주었습니다.

배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자를 한꺼번에 나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은 내륙과 서해를 잇는 물길이었고, 한반도 중부를 오가는 육지의 길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설명 3 서해로 나가는 길은 중국과의 교류에도 중요했습니다.

한강 하류와 서해 쪽의 길을 확보하면 중국과 직접 교류할 통로를 마련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특히 신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강을 차지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과 전혀 교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바닷길이나 육로도 있었으며, 한강 유역은 여러 조건을 함께 갖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강 유역의 가치는 ‘농업 생산력·교통과 물자 운반·중국과의 교류’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했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림 2. 농사짓는 땅과 물자를 나르는 길. 강가의 농경지와 물자를 싣는 배를 함께 보며 한강 유역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학습을 위한 재구성 그림이며 특정 유적·항구·선박을 그대로 복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림 속 강배가 중국까지 직접 건너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Q11 한강 유역의 주도권은 어느 나라로 옮겨 갔나요?

한 줄 답

큰 흐름은 ‘4세기 백제·5세기 고구려·6세기 신라’입니다. 다만 각 나라가 해당 세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강의 모든 지역을 계속 차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어 풀이

- **세기:** 100년씩 묶어 세는 기간. 4세기는 301~400년, 5세기는 401~500년, 6세기는 501~600년임.
- **진흥왕:** 6세기 신라의 왕으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음.
- **대가야:** 오늘날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 여러 가야 나라 가운데 하나였음.
- **순수비:** 왕이 자기 영토를 돌아본 일을 기념해 세운 비석. ‘순수’는 왕이 여러 지방을 돌아보는 일을 뜻함.
-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서울 북한산에 세웠던 신라의 비석으로,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음을 보여 줌.

설명 1 4세기 백제는 한강 유역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남북으로 세력을 넓히고 바다를 통해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전성기를 비교할 때 4세기는 백제와 연결합니다. 이는 백제가 4세기에 처음 한강 유역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제는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설명 2 5세기에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강한 힘을 갖추었습니다. 한강 유역의 주도권 변화에서는 특히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을 연결해야 합니다. 평양 천도와 남진 정책을 추진한 고구려가 백제의 중심 지역을 빼앗은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신라 지원과 장수왕의 한성 함락을 같은 사건으로 섞지 마세요.

설명 3 6세기에는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했습니다.

진흥왕 때 신라는 먼저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뒤, 백제가 차지한 지역까지 빼앗아 한강 유역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신라의 이 지역 진출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병합하고 북쪽으로도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존재했으므로 한강 확보를 삼국 통일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4세기 백제·5세기 고구려·6세기 신라’를 먼저 연결하고, ‘근초고왕·장수왕의 한성 함락·진흥왕의 한강 확보’를 덧붙이세요. 비석은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의 업적’,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의 중부 진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로 구별합니다.

Q12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백제와 신라는 왜 다시 싸웠나요?

한 줄 답

신라가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뒤,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까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협력했지만, 중요한 땅을 차지하려는 두 나라의 이익은 충돌했습니다.

용어 풀이

- **상류**: 강의 시작 부분에 가까운 쪽.
- **하류**: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쪽에 가까운 부분.
- **결렬**: 협의나 동맹 같은 관계가 깨지는 것.
- **관산성 전투**: 554년 백제와 신라가 오늘날 충북 옥천 일대에서 벌인 전투. 백제 성왕이 전사했음.

설명 1 551년에는 백제와 신라가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힘을 합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가 상류와 하류를 모두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이후 동맹이 깨진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설명 2 553년 신라가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신라는 백제가 되찾았던 하류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서해 쪽으로 나갈 길을 넓혔습니다. 백제는 어렵게 되찾은 땅을 동맹 상대에게 잃었고, 나제 동맹은 깨졌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고 외우기보다 한강 하류를 둘러싼 이익의 충돌을 보아야 합니다.

설명 3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했습니다.

백제는 신라를 공격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패했고 성왕도 전사했습니다. 이후 백제와 신라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맹의 결렬과 관산성 전투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해의 사건은 아닙니다. 551년의 공동 공격, 553년의 신라 하류 장악, 554년의 관산성 전투를 순서대로 구별하세요.

시험 포인트

551년: 백제는 하류, 신라는 상류를 차지함. 553년: 신라가 하류까지 차지하여 나제 동맹이 깨짐.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함. 동맹 체결의 목적과 결렬의 원인을 구별하세요.

한강 유역의 주도권 변화

큰 흐름과 6세기 중반의 변화를 구별합니다.

세기별 큰 흐름



해당 세기 내내 모든 지역을 지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551~554년: 공동 공격에서 동맹의 결렬로



색 막대: 지배 국가 비교 / 실제 영토의 모양·넓이는 아님
세로 화살표: 시간 순서 / 간격은 실제 기간과 비례하지 않음

그림 3. 큰 흐름 안에서 짧은 변화를 구별해 보세요. 위쪽은 세기별 주도권의 큰 흐름, 아래쪽은 6세기 중반의 사건 순서입니다. 색 막대에서 551년과 553년의 하류·상류 지배 국가를 비교해 보세요. 막대는 강 유역을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영토의 모양이나 넓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로 화살표는 시간 순서, 가로 화살표는 물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시간 화살표의 간격은 실제 기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해당 세기 내내 한강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왕과 활동을 연결하기

나라·왕	활동	이해할 점
백제 근초고왕	마한 세력 통합, 평양성 공격(371), 동진·왜와 교류	4세기 백제의 전성기. 평양성 공격 때 고국원왕 전사
고구려 광개토 대왕	만주 방면의 영토 확대, 신라 지원(400)	왜군 격퇴와 신라 영향력 확대, 백제 견제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414), 평양 천도(427), 한성 함락(475)	아버지의 업적을 기림. 왕권 강화와 남진 정책 추진
신라 눌지왕	백제와 나제 동맹(433)	고구려 견제. 한성 함락보다 앞서 동맹 시작
백제 문주왕	웅진 천도(475)	한성 함락 뒤 나라를 지키고 정비함
백제 무령왕	22담로에 왕족 파견	지방 통제와 왕권 강화
백제 성왕	사비 천도(538), 국호 남부여, 한강 하류 회복(551)	중흥 추진. 신라에 하류를 빼앗긴 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554)
신라 내물왕·지증왕	내물왕 무렵 김씨 왕위 세습·마립간, 지증왕 때 왕호를 왕으로 변경	왕호와 실제 통치 제도의 정비를 함께 이해함
신라 진흥왕	한강 유역 확보, 대가야 병합과 영토 확대	6세기 신라 성장.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한강 유역 진출을 보여 줌

수도 이동과 한강 경쟁을 구별하기

구분	변화	이유·의미
고구려 수도	국내성 → 평양(427)	넓어진 나라 통치, 왕권 강화, 남진 정책
나제 동맹의 시작	신라·백제가 협력함(433)	고구려의 남진과 간섭 견제
백제 수도 1	한성 → 웅진(475)	한성 함락 뒤 방어와 나라 재정비
백제 수도 2	웅진 → 사비(538)	중흥과 통치 체제 정비
한강 유역의 가치	농업 생산력·교통·중국 교류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는 기반
한강 주도권의 큰 흐름	4세기 백제 → 5세기 고구려 → 6세기 신라	모든 해·모든 지역의 지배를 똑같이 뜻하지는 않음
나제 동맹의 결렬	신라가 백제의 한강 하류까지 빼앗음(553)	한강을 둘러싼 이익 충돌. 이듬해 관산성 전투

확인 문제

확인 01 빈칸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며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왕은 _____입니다.

확인 02 객관식

371년 백제의 평양성 공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뒤 백제가 공격한 사건입니다.
- ② 백제가 고구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여 전쟁을 끝낸 사건입니다.
- ③ 고국원왕이 전사했지만 고구려라는 나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 ④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차지하여 수도를 옮기게 한 사건입니다.

확인 03 객관식

광개토 대왕의 신라 지원이 고구려에 준 이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백제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 ② 신라를 도운 뒤 한반도 남부의 일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 ③ 백제가 고구려의 지방을 대신 다스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 ④ 신라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 수도를 경주로 옮겼습니다.

확인 04 객관식

“고구려의 지원 뒤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으니, 신라는 그때 고구려에 병합된 거야.”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고구려가 당시에는 왕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 ② 신라가 왜군에게 군대를 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③ 영향력 확대가 두 나라의 모든 교류 중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④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병합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 05 빈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414년에 세운 왕은 _____입니다.

확인 06 객관식

광개토 대왕릉비를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고구려가 세웠으므로 모든 문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 ② 왕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을 생각하며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 ③ 태왕이라는 말만으로 주변 모든 나라의 병합을 확정합니다.
- ④ 비문에 적힌 영락을 백제가 사용한 연호라고 해석합니다.

확인 07 빈칸

장수왕은 수도를 ㄱ. _____에서 ㄴ. _____으로 옮겼습니다.

확인 08 객관식

장수왕의 수도 이동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북쪽으로만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 중부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 ② 기존 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 모든 왕의 조식을 없앴습니다.
- ③ 신라 진흥왕에게 한강을 빼앗긴 직후 피난하여 옮겼습니다.
- ④ 넓어진 나라를 다스리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확인 09 빈칸

나제 동맹을 맺은 두 나라는 ㄱ. _____, ㄴ. _____이며, 두 나라가 함께 견제하려 한 나라는 ㄷ. _____입니다.

확인 10 객관식

나제 동맹의 시작과 한성 함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 뒤에야 나제 동맹이 처음 생겼습니다.
- ② 한성이 함락된 직후 고구려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 ③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뒤에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 ④ 두 사건은 같은 해에 일어났으며 신라가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확인 11 짧은 서술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와 사비로 수도를 옮긴 목적을 비교해 한두 문장으로 쓰세요. **웅진 천도를 부른 사건과 사비 천도로 이루려 한 목표**를 모두 넣으세요.

확인 12 객관식

백제의 웅진 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 ② 문주왕이 한성 함락 뒤 방어에 유리한 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 ③ 개로왕이 고구려군을 피해 미리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 ④ 성왕이 한강을 차지한 뒤 그 강가에 새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확인 13 단답

백제의 수도 세 곳을 먼저 수도였던 곳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오늘날의 도시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답: _____ → _____ → _____

확인 14 빈칸

백제의 ㄱ. _____ 은 22담로에 ㄴ. _____ 을 보내 지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확인 15 객관식

22담로 정책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방에서도 왕과 중앙의 방침에 따라 일하게 하려 했습니다.
- ② 담로마다 서로 관계없는 독립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 ③ 왕이 혼자 모든 지방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 했습니다.
- ④ 지방 세력이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확인 16 객관식

성왕의 사비 천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 ① 광개토 대왕이 보낸 군대를 피해 신라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 ② 고구려의 수도를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 남쪽을 압박했습니다.
- ③ 나라의 중흥을 추진하면서 넓은 수도와 금강 물길을 활용했습니다.
- ④ 한성이 함락된 바로 그해에 서울에서 부여로 곧바로 옮겼습니다.

확인 17 단답

신라 지증왕 때 왕호를 ‘왕’으로 바꾸기 전에 쓰던 칭호를 쓰세요.

답: _____

확인 18 객관식

한강 유역의 가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한강이 없으면 어느 나라든 곡식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 ② 농사짓는 땅과 교통로를 확보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 ③ 한강을 차지하면 관리나 군대 없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 ④ 한강 외에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바닷길이나 육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확인 19 빈칸

한강 유역의 주도권을 세기별 큰 흐름으로 정리하면, 4세기 ㄱ. _____, 5세기 ㄴ. _____, 6세기 ㄷ. _____입니다.

확인 20 객관식

551년과 553년의 한강 유역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551년 고구려가 한강을 처음 차지했고, 553년 백제가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 ② 551년 신라가 상류와 하류를 모두 차지했고, 553년 백제에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 ③ 551년 백제가 상류를 차지했고, 553년 신라가 그 상류만 빼앗았습니다.
- ④ 551년 백제는 하류·신라는 상류를 차지했고, 553년 신라가 하류까지 차지했습니다.

확인 21 객관식

나제 동맹이 깨진 뒤 일어난 관산성 전투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 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 ② 신라 지증왕이 전사하고 고구려가 한성을 차지했습니다.
- ③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 ④ 백제 근초고왕이 전사하고 신라가 나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확인 22 객관식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 ② 광개토 대왕이 아버지 장수왕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 ③ 백제의 근초고왕이 수도를 북한산으로 옮겼습니다.
- ④ 신라가 비석을 세울 때 이미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확인 23 객관식

한강 유역의 주도권 변화를 설명할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6세기 신라가 한강을 확보했다는 말은 그때 삼국 통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 ② 4세기 백제가 강했다는 말은 백제가 모든 시대에 가장 강했다는 뜻입니다.
- ③ 5세기 고구려가 강했다는 말은 그때 신라가 고구려에 병합되었다는 뜻입니다.
- ④ 세기별 큰 흐름을 해당 세기 내내 모든 지역을 지배했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확인 24 객관식

왕과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진흥왕 —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병합함
- ② 무령왕 —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 건립
- ③ 성왕 —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김
- ④ 장수왕 —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꿈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근초고왕	13	한성 → 웅진 → 사비
02	③	14	ㄱ 무령왕 / ㄴ 왕족
03	①	15	①
04	④	16	③
05	장수왕	17	마립간
06	②	18	②
07	ㄱ 국내성 / ㄴ 평양	19	ㄱ 백제 / ㄴ 고구려 / ㄷ 신라
08	④	20	④
09	ㄱ·ㄴ 신라와 백제(순서 무관) / ㄷ 고구려	21	③
10	③	22	①
11	아래 모범 답안 참고	23	④
12	②	24	①

확인 01 정답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백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남쪽으로 영향력을 넓혔고, 북쪽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동진·왜와의 교류도 함께 연결하세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 ③

371년 평양성 공격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했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수도는 국내성이었습니다.

- ①: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427년으로, 371년보다 뒤의 일입니다.
- ②: 왕의 전사나 특정 성의 공격이 나라 전체의 정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④: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한 사건은 장수왕 때인 475년입니다.

다시 읽기: Q01 설명 2·Q04 설명 3.

확인 03 정답 ①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에 응해 왜군을 물리치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왜와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②: 남부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신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 ③: 고구려가 백제에 자기 지방 통치를 맡긴 정책이 아닙니다.
- ④: 고구려의 수도를 경주로 옮긴 사건이 아닙니다. 경주 일대는 신라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읽기: Q02.

확인 04 정답 ④

고구려는 신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지만, 신라는 자기 왕과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간섭을 받는 것과 다른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 ①: 고구려에는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 ②: 신라는 왜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③: 영향력 확대는 상대 나라의 결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류 중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기: Q02 설명 2·3·Q05 설명 1.

확인 05 정답 장수왕

주로 업적을 기리는 대상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고, 비를 세운 왕은 아들 장수왕입니다. 비석 이름에 나온 왕과 비를 세운 왕을 구별하세요.

다시 읽기: Q03 설명 1.

확인 06 **정답 ②**

광개토 대왕릉비는 고구려가 왕의 업적을 기리려고 남긴 자료입니다. 기록을 무조건 버리거나 그대로 믿기보다, 기록의 목적을 생각하며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 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록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태왕은 왕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칭호입니다. 그 말만으로 주변 나라를 모두 병합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 ④: 영락은 광개토 대왕이 사용한 고구려의 연호입니다.

다시 읽기: Q03 설명 2·3.

확인 07 **정답 ㄱ 국내성 / ㄴ 평양**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성’으로 써도 맞습니다. 평양은 국내성보다 남쪽에 있으며 대동강 유역에 있습니다.

다시 읽기: Q04·그림 1.

확인 08 **정답 ④**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평야와 물길을 이용할 수 있었고, 한반도 중부와 남쪽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기존 귀족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것은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 ②: 기존 귀족의 힘을 키우기보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③: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5세기, 진흥왕의 한강 유역 확보는 6세기의 일입니다.

다시 읽기: Q04.

확인 09 **정답 ㄱ·ㄴ 신라와 백제 / ㄷ 고구려**

ㄱ과 ㄴ의 순서는 바뀌어도 맞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과 간섭을 견제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신라가 이전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해하세요.

다시 읽기: Q05.

확인 10 정답 ③

나제 동맹의 시작은 보통 433년, 고구려의 한성 함락은 475년으로 정리합니다. 동맹이 먼저이고 한성 함락이 뒤입니다.

- ①: 관산성 전투는 동맹이 깨진 뒤인 554년의 일입니다.
- ②: 동맹 당사자는 고구려와 백제가 아니라 신라와 백제입니다. 시작 시점도 한성 함락 이전입니다.
- ④: 두 사건의 연도는 다르며, 한성을 함락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다시 읽기: Q05 설명 2·Q12 설명 3.

확인 11 모범 답안·인정 기준

모범 답안: 웅진 천도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어 나라를 지키고 다시 정비하려 한 것이고, 사비 천도는 나라의 중흥과 왕권 강화를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인정 기준: ① 한성 함락 또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기존 수도를 잃은 상황, ② 사비에서 중흥·왕권 강화·통치 체제 정비를 추진하려 한 목표가 각각 드러나면 맞습니다. ②는 세 표현 중 하나를 쓰거나, ‘나라를 다시 발전시키고 왕 중심으로 다스리려 했다’처럼 같은 뜻으로 풀어 써도 됩니다. 왕 이름과 연도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①이 빠진 답(예: 웅진 천도의 이유를 ‘위기를 피해 옮김’이라고만 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설: 두 천도는 모두 수도 이동이지만 배경과 목적이 다릅니다. 웅진의 방어상 이점과 사비의 넓은 터를 적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왜 그때 옮겨야 했는지와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를 설명하세요.

다시 읽기: Q07·Q09.

확인 12 정답 ②

문주왕은 475년 한성 함락 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산과 금강을 이용해 방어하기 유리한 곳에서 백제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 ①: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과 문주왕의 웅진 천도를 섞은 설명입니다. 웅진은 한성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 ③: 개로왕은 한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성 함락 뒤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왕은 문주왕입니다.
- ④: 성왕이 옮긴 수도는 사비입니다. 웅진은 한강이 아니라 금강 유역에 있습니다.

다시 읽기: Q07·그림 1.

확인 13 **정답 한성 → 웅진 → 사비**

오늘날의 이름인 ‘서울 → 공주 → 부여’로 써도 맞습니다. ‘한성 → 공주 → 사비’처럼 두 방식이 섞여 있어도 각각의 장소와 순서가 맞으면 인정합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는 475년, 웅진에서 사비로는 538년에 옮겼습니다.

다시 읽기: Q07·Q09.

확인 14 **정답 ㄱ 무령왕 / ㄴ 왕족**

무령왕은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ㄴ은 ‘왕의 집안 사람들’처럼 혈연관계가 드러나게 풀어 써도 맞습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관리’라고만 쓰면 왕족을 보냈다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읽기: Q08.

확인 15 **정답 ①**

왕족을 지방의 책임자로 보내 중앙의 방침을 전달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왕권과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 ②: 담로는 독립 국가가 아니라 백제의 지방 통치 거점 또는 구역입니다.
- ③: 왕이 책임자를 통해 다스리는 것이므로 왕 혼자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 ④: 중앙의 명령에 따르게 하려는 정책이므로 목적을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읽기: Q08 설명 2·3.

확인 16 **정답 ③**

성왕은 538년 사비로 천도하여 더 넓은 수도를 마련하고 통치 조직과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금강 물길을 이용하는 데도 유리했습니다.

- ①: 사비 천도는 백제 성왕의 정책이며 신라의 수도 이동이 아닙니다.
- ②: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④: 475년에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고, 이후 538년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다시 읽기: Q09.

확인 17 **정답 마립간**

지증왕 때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립간도 신라의 왕을 부르던 칭호이며, ‘왕’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다시 읽기: Q06 설명 2·3.

확인 18 **정답 ②**

한강 유역은 농업 생산력과 사람·물자가 오가는 길, 중국과의 교류 통로를 함께 확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 ①: 한강 유역 밖에서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강 유역만 곡식을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 ③: 중요한 땅을 확보해도 그곳을 다스릴 관리와 지킬 군대는 필요합니다.
- ④: 중국과 오가는 다른 바닷길과 육로도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 확보가 유리했다는 말과 유일한 길이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다시 읽기: Q10.

확인 19 **정답 ㄱ 백제 / ㄴ 고구려 / ㄷ 신라**

4세기 근초고왕의 백제, 5세기 광개토 대왕·장수왕의 고구려, 6세기 진흥왕의 신라를 연결합니다. 한강 주도권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장수왕의 한성 함락과 진흥왕의 한강 유역 확보를 구별하세요.

다시 읽기: Q11·그림 3.

확인 20 **정답 ④**

551년에는 백제가 하류, 신라가 상류를 차지했습니다. 553년 신라가 백제의 하류 지역까지 빼앗으면서 나제 동맹이 깨졌습니다.

- ①: 551년은 백제·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때입니다. 백제가 평양으로 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 ②: 신라가 하류까지 차지한 것은 553년입니다. 그해 백제에 모두 돌려준 것도 아닙니다.
- ③: 551년 백제가 차지한 곳은 상류가 아니라 하류입니다. 553년 신라가 빼앗은 곳도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입니다.

다시 읽기: Q12 설명 1·2.

확인 21 **정답 ③**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했습니다. 이는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빼앗은 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 ①: 고국원왕의 전사는 371년 백제의 평양성 공격과 관련됩니다.
- ②: 한성 함락은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일어났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왕은 지증왕이 아닙니다.
- ④: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백제 왕은 근초고왕이 아니라 성왕입니다. 신라의 국호 정비는 지증왕 때의 일입니다.

다시 읽기: Q12 설명 3.

확인 22 **정답 ①**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한강 유역에 진출한 뒤 그 지역을 돌아본 일을 기념하는 자료입니다.

- ②: 광개토 대왕릉비와 혼동한 설명입니다. 그 비는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을 기린 것입니다.
- ③: 신라의 비석이며 백제 근초고왕의 천도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 ④: 진흥왕 때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한강 유역 확보와 삼국 통일은 다른 일입니다.

다시 읽기: Q03 설명 1·Q11 설명 3.

확인 23 **정답 ④**

세기별 정리는 큰 흐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지배 범위와 시점에는 변화가 있었으며, 같은 세기 안에서도 한강 유역을 나누어 차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 ①: 진흥왕의 한강 유역 확보는 삼국 통일보다 앞선 일입니다.
- ②: 근초고왕 때의 전성기가 백제의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 ③: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과 신라를 병합한 것은 다릅니다.

다시 읽기: Q02 설명 3·Q11·Q12.

확인 24 **정답 ①**

신라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병합하는 등 영토를 넓혔습니다.

- ②: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왕은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 ③: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왕은 장수왕입니다.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 ④: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왕은 백제 성왕입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입니다.

다시 읽기: Q03·Q04·Q09·Q11 설명 3.
